

## 독일의 석/박사과정 및 연구소 근무처우 사례 조사

(2017년 10월 12일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역음)

과학기술 분야 연구에서 우수한 역량을 자랑하고 있는 독일은 이를 바탕으로 유럽 산업과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 사회를 끊임없이 강조하면 그 근간이 되는 우수 인력양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석/박사과정 및 이에 준하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신진 연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들의 과업을 하나의 노동으로 간주하고, 노동계약을 통해 다른 직업과 동일한 보호를 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일한으로 60년 넘게 운용되어 오던 불법고용방지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위반사태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호를 통해 독일에서 석/박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한국인들도 내국인들과 동일한 처우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언급될 내용은 우리 재독과학회 회원 중, 독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식계약을 통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3명과의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처우와 환경에서 자신의 학위 및 업무를 수행하고 그 권익을 보장받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간단히 4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였으며, 서면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아래 내용이 독일에서 석박사과정 진학을 희망하는 한국의 차세대 과학기술분야 인재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1. 독일의 대학교(공공연구관 포함)는 석 박사과정 재학생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가?
2.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일반노동자가 체결하고 있는 근로계약과 같은가?
3.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기준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4. 한국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하면 4대 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례 1:**

저는 한국에서 학사과정을 마친 후, 베를린 공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독일항공우주센터 (DLR)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남성(만 30세)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독일항공우주센터에서는 석사논문을 위해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졸업 후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독일이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학/석/박사 과정의 학생이 연구 활동과 논문을 학교나 공공 연구소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에 모든 인턴십을 포함한 연구 활동은 반드시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있고, 또한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2. 두 경우 모두 계약서의 주요 골자는 같습니다. 권리와 의무, 보안 서약 등은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있고, 금액적인 부분과 근무 시간만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DLR은 공공기관 (öffentlicher Dienst) 이므로 공공기관 기준 급여표를 따르며, 그 급여 기준표의 이름은 TVöD 입니다.

학위 과정별 급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 학사 과정 (학위 수여 전) 중 인턴: 독일은 학사 과정 중에 의무적으로 인턴십을 1-3회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횟수는 대학의 자율입니다. 학사 학위를 따기 전에는 해당 연구직을 통한 income 이 독일법 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의 기준인 450유로 이내에서 돈이 지급되며, DLR에서는 대략 400-450유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2) 학사 과정 중 논문: E6를 따르며, 1주일에 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은  $2343.24 * (8/39) = 480.6$  유로가 됩니다. 여기서 39는 독일 법상 주당 풀타임 근무 시간입니다.
  - 3) 학사 학위 수여 이후 정규 풀타임: 위 테이블 중 E11-12를 따릅니다. 해당 레벨은 DLR 내부적으로 프로젝트의 난이도, 펀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4) 석사 과정 중 인턴 혹은 학사학위 수여 이후 파트타임: DLR에서는 파트타임과 풀타임 모두 가능하며, E 10을 따릅니다. 파트타임인 경우 근무시간/3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5) 석사 과정 중 석사 논문: E6를 따르며, 1주일에 16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은  $2343.24*(16/39) = 961.3$  유로가 됩니다.
  - 6) 석사 과정 이후 정규 풀타임: 위 테이블 중 대체로 E13 을 따릅니다.
  - 7) 박사과정: 위 테이블 중 E13 을 따르며, DLR에서는 대체로 50%의 파트타임 입니다. (대 학교는 대부분 100%입니다). 다만 제안서 등을 통해 추가 프로젝트 펀딩을 받게 되면 100% 풀타임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4. 고용, 산업재해,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다른 것은, 건강보험 부분입니다. 건강보험은 모두 공보험인 한국과 달리 공보험과 사보험이 모두 존재하는데, 해당 보험 서류를 내면, (DLR에서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사례 2:

한국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2017년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졸업 후에 현재 Fraunhofer 지능시스템연구소에서 연구인턴으로 근무 중인 한국인 남성(만 28세)입니다.

1. 항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Fraunhofer의 경우, 근무 부서, 고용자, 프로젝트번호가 명시 되어야 합니다. 학생(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의 경우 한 달에 80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아니요. 다릅니다. 학생의 경우,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일반 노동자가 근로계약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또한 다르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근로계약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raunhofer의 경우 2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40시간 근무(하루 2시간)로 계약을 했다면, 한달에 2일(4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학부과정, 석사과정 또는 학석사 통합과정을 표기하게 되어있으며, 계약기간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와 임금을 지불할 경우 통장 정보를 기입하는 난이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 근무시간과 시간당 임금 그리고 월급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학사 및 석사 논문 작성의 경우 때때로 연구소에서 월급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기간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범죄사실 확인을 연구소 팀장으로부터 확인후 서명이 된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만 합니다.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최종학위 및 근무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석사과정중인 학생이 받는 금액은 Fraunhofer의 경우, 시간당 약14유로를 지불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계약시간 보다 초과로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 임금 계산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경우 약 11유로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4. 학생근로계약의 경우, 국가에서 정해놓은 월급기준(450유로)을 초과할 경우 각 항목별로 가입여부를 학생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따라 세금이 다르며, 약 10%가 제외된 금액이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최고 계약시간인 80시간을 하더라도 월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최소한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만 30세 미만의 외국인 학생의 경우 공보험가입이 의무이며 약 90유로정도를 매달 지불합니다.

**사례 3:**

**한국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마치고 다름슈타트 공대의 컴퓨터과학 전공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한국인 남성(만27세)입니다.**

1. 대부분의 박사과정 학생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며, 인건비의 출처에 따라서 장학금 혹은 연구과제 소속 계약 신분으로 나뉘집니다. 연구 주제는 연구비를 지급하는 과제내용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졸업 논문은 박사과정 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합니다.

석사과정은 근로계약을 하지는 않고 담당 지도교수님 및 박사과정생의 지도를 받으며 졸업 논문을 작성합니다. 석사논문 작성이 과제 수행이 아닌 자신의 원하는 공부 혹은 연구 수행에 가깝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성격을 띠지 않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졸업논문은 주로 한 학기 동안의 연구 참여를 통해 작성합니다. 여건에 따라 추가 한 학기 정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HiWi라는 제도를 통하여 학/석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인턴을 채용합니다 (주로 한 학기). 이 때 학생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실의 연구참여를 하게 됩니다. 연구 주제는 학생들의 졸업주제와 무관하여 박사과정생들의 연구를 보조하거나 조교 업무를 보조합니다.

2. 전반적으로 일반노동자가 체결하고 있는 근로계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시간, 연차, 인건비 등의 계약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행정적으로도 학생이 아닌 학교에 고용된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3. 근로계약은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연차 30일, 병가 사용 가능, 연구 결과 및 기록물들은 학교/재단 귀속, 독일 헌법 수호, 기본권 보장, 뇌물 수수 금지, 기밀 누설 금지 등). 저는 학교에 고용된 직원의 신분으로 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 과제의 계약 내용 혹은 연구비 출처 (ERC, DFG) 등에 따라서 세부 내용이 상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와의 계약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인건비는 TV-L (<http://oeffentlicher-dienst.info/c/t/rechner/tv-l/west?id=tv-l-2017>)이라는 각 지역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인건비 표를 따릅니다. 호봉제와 비슷하며 박사과정 입학 전 관련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면 일한 기간이 호봉에 인정이 됩니다. 저는 입학 시 TV-L 13 그룹에서 시작했으며, TV-L 13은 약 세전 3500유로 (약 세후 2100유로) 상당의 월급에 해당이 되는 그룹입니다. 다만 학과의 업무성격 및 재정상황에 따라서 part-time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는 해당 TV-L 그룹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 받습니다 (70% 혹은 50% 상당). 2년 마다 호봉이 한 단계씩 상승하며 연말에는 월급의 50% 정도에 해당이 되는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4. 저는 박사과정 full-time 계약자이기 때문에 공보험 가입이 의무였습니다. 학교와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보험 회사와 보험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매달 월급에서 자동정산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써 가입 여부가 의무가

아닌 선택 이었습니다 (VBL Klassik and VBL extra). 연금에 가입을 하여 5년 이상 연금 납부 시 (VBL Klassik) 연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납부 중단 시 납부금액 원금과 납부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를 반환해준다고 합니다.